금주의 법구-〈별역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이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이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이 없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9월 27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72호 2017년 11월 15일 수요일

조계종 신도관리 체질 개선 나선다

신도등록 사이트 개편…중앙신도회와 공동관리

조계종이 답보상태인 신도 관리 체질 개선에 나섰다. 조계종 포교원은 10월 31일 오는 12월 말 선보일 새 조계종 인터넷 신도등록 사이트의 내부보고회를 진행했다.

조계종 인터넷 신도등록 사이트는 2003년 10월 사찰과 신도들의 신도등록 편리성을 위해 포교원이 개발했다. 이번 신도등록 사이트 개편은 2008년 신도등록 사이트 개편 작업 이후 9년 만의 일이다.

이번에 개편되는 신도등록 사이트는 23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3년 내 교무금 납부 이력이 없는 미활동 신도 명부조회 기능과 연도별 신규 및 재발급 명단 통계 조회가 가능하단 점이다. 이와 함께 제적사찰과 전체사찰 기준 신도등록자 분류, 사찰별 신도등록 현황 등도 조회 가능하다.

그동안 신도등록 사이트는 신도관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관련 통계를 내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신규 신도등록 사이트는 웹에 관련 프로그램이 완전히 탑재됐으며 반응형 웹을 적용해 PC뿐만 아니라 태블릿과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인터넷 신도등록 사이트 개편은 신도들이 보다 편하게 신도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포교원이 사찰 신도정보를 망라, 분석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포교원 관계자는 "신도 확대 및 관리 체계화를 위해 사이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신도등록 사이트 개편은 그동안 저조한 종단 신도 등록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낀데서 출발한다.

포교원에 따르면 현재 조계종 신도로 등록된 불자는 26만여 명 수준이지만 종단에 신도의무인 교무금을 납부하는 신도는 8만여 명 수준이다.

조계종 신규 신도 등록자는 2만여 명 수준에서 2009년 신도멤버쉽 제도 도입 당시 5만 여 명 수준으로 대폭 늘었지만 이후 지속 감소했다.

교무금 납부자수도 멤버쉽 제도 도입 이전 4~5만여명 수준에서 2009년 8만 38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이후 8~9만명 수준에서 답보하고 있다. 매년 2만여 명에 가까운 신규 신도등록자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와 비슷한 수의 신도들이 교무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무금 납부자로만 보면 서울 도심사찰 1곳의 신도수보다 적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교무금 납부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직접적으로 보시금의 활용처를 체감하는 사찰과 달리 종단 교무금은 체감도가 낮기 때문"이라며 "종도 정체성이 낮아지고, 사찰 측도 분담금 추산 근거 등이 될 것으로 우려, 홍보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

조계종 포교원이 2015년 교무금 납부 사찰 118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0명 미만이 교무금을 납부하는 사찰은 1073곳에 달했다. 3천명 이상이 교무금을 납부하는 사찰은 단 2곳에 불과했다.

新신도등록 사이트 12월 공개
교무금 납부 이력 통계 가능
반응형 웹, 태플릿서도 활용

중앙신도회와 협력 관계 구축
사찰 · 교구신도회 역할 부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포교원은 신년초 중앙신도회와 신도관리 협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12월 진행된 수도권 교구신도회 간담회에서는 신도 등록을 중앙신도회 및 교구신도회 등이 담당하며 대신 교무금 재원 일부를 신도회가 사용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사찰신도회, 더 나아가 교구신도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 종단 교무금의 필요성을 알리고, 활용을 신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신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찰신도회가 직접적으로 뛸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 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수능 D-7, 조금 이라도 높은 곳에' 이 눈길을 끈다.

자녀들이 수능시험에서 조금이라도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라는 부모들의 마음은 같았다. 수능을 일주일 앞둔 11월 9일 조계사에서 열린 '수능대박! 사랑한다! 응원한다!' 기원법회서 소원지를 쓴 학부모들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에 소원지를 달기 위해 손을 뻗는 모습
글 · 사진= 노덕현 기자

연등회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첫걸음'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 7일 '2018년 등재신청 종목' 선정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축제인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11월 7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회의에서 2018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 목록 등재 신청 종목으로 '연등회'를 선정했다.

2012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된 연등회는 신라 경문왕 6년(866)과 진성여왕 4년(890)에 '황룡사로 행차해 연등을 보았다(看燈)'는 〈삼국사기〉 기록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이후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 시대에는 팔관회와 더불어 연등회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다. 〈고려사〉에 따르면 의종 20년(1166)에 백선연이 부처님오신날에 연등회를 시행했고 고종 32년(1245) 최이가 연등회를 열어 밤새도록 기악과 연희를 벌인 것이 오늘날 연등회로 계승됐다.

숭유억불의 조선시대에는 국가 주도 연등회는 중지됐으나, 민간에서는 민속행사로 남아 호기놀이 등 세시풍속으로 전승됐다. 근대에 들어서는 시대 변화에 따라 강연회, 음악회 등 현대적인 문화행사의 형식으로 부처님오신날 행사가 열렸지만, 해방과 6.25 전쟁 이후부터는 제등행렬이 다시 이뤄지며 연등회 복원이 이뤄졌다.

이후 1975년 부처님오신날이 국가 공휴일로 제정되면서 현대 연등회 행사는 본격화 됐으며, 1996년부터는 연등행렬과 더불어 불교문화마당, 어울림마당(연등법회), 회향한마당(대동한마당) 등 행사를 추가해 국민적인 전통 문화축제로 발전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한 걸음 다가선 연등회는 내년 3월 31일까지 유네스코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2020년 유네스코 정부간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군종병 수급 어려움… 군종교구 홍보 '잰걸음'

첫 특기병 일괄 선발에 포스터 배포 등 홍보 박차

군포교 일선에서 활약하는 군종병이 병무청 특기병 선발로 단일화 된다. 군법사들의 자대에서의 병사 선발 과정이 없어짐에 따라 청년불자들의 입대 전 지원 여부가 군종병 확보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선묵 혜자)는 11월 3일 2018년도 불교군종병 모집계획 안내를 통해 올해부터 육군군종병의 경우 병무청 전문특기병 선발로만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종병 선발은 병무청의 일부 특기병 선발과 자대에서 군법사들의 병사 직접 선발이 병행돼왔다.

불교군종병은 선발 정원에 비해 지원자가 많았지만 최근 지원자 미달 사태를 겪고 있다. 2016년 1차 5명 선발에 9명이 지원했으며, 2차 5명 선발에 10명이 지원했다. 3차와 4차 또한 각각 5명과 4명 선발에 8명과 4명이 지원했다. 2017년에도 5명 선발에 10명이 지원했지만 2차 10명 선발에 8명으로 미달됐으며, 3차 10명 선발에 7명으로 미달됐다.

군종교구 측은 "현재 불교군종병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감소로 우수 불교군종병 자원 확보가 제한되고 있다. 군포교 현장에서의 장기적인 역량 저하가 우려된다"며 "기독교 군종병의 경우 평균 2.5:1의 경쟁률이나 불교군종병은 관심이 저조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2018년에는 총 60여 명이 선발 예정으로 분기별 15명 내외가 선발된다. 군종교구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 종립대학을 비롯해 일선 대학 및 대불련 등에 홍보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종병 자격요건은 불교학과를 1년 이상 수료했거나, 수계 후 5년 이상 경과돼야 한다. 또는 해당사찰 주지 스님이 신행생활 추천서를 통해 증명하면 지원 가능하다. (02)749-8646

노덕현 기자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010-9446-1862 | 010-2788-7270
031)768-7270 | 031)768-7271
e-mail : hskhsg@naver.com